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7.(일) 12:00  
(지 면) 2026. 6. 8.(월) 조간

##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전국 129개 마을 신청

- 약 2개월의 짧은 공모기간에도 11개 시도 61개 시·군 참여
- 사업 준비도가 높은 마을 우선 선정, 성공모델 발굴로 전국 확산에 기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5월 31일(일)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마감한 결과 전국 11개 시도, 61개 시군에서 총 129\*개 마을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대구(3), 세종(1), 경기(13), 충북(20), 충남(11), 전북(24), 전남(30), 경북(14), 경남(8), 강원(4), 제주(1)

햇빛소득마을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1차 공모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참여, 부지 확보, 자금 조달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을 우선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약 2개월의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마을이 신청에 참여하면서,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확인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우선 선정하고,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하여 향후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1차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는 사회연대경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법률·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된 마을은 오는 7월 31일(금)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최종 통보한다.

아울러,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도 부족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향후 공모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짧은 신청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의 129개 마을이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큰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1차 공모로 선정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햇빛소득마을 3천개 달성’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햇빛소득마을추진단 기반조성과	책임자	과 장	류재형 (044-205-6850)
		담당자	사무관	박민영 (044-205-6851)

